

# 高等教育改革의 基本方向

金 信 福

(敎改審 高等教育分科 專門委員)

- ◇ 敎育개혁심의회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한 ◇
- ◇ 국 敎育문제의 종합적인 진단과 개혁의 기본 방향 설정을 ◇
- ◇ 완료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그 일환으로 확정 ◇
- ◇ 한 高等教育 개혁의 '기본 방향'과 '전략 및 과제'를 다 ◇
- ◇ 룬 의결 主文 및 배경에 관한 주관 전문위원들의 기고를 ◇
- ◇ 실기로 한다. ……………〈편집자 주〉 ◇

● 高等教育은 自我實現을 통한 지도적 인격의 涵養과 국가 및 人類社會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高等教育기관은 敎育·研究·奉仕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高等教育은 한국인으로서의 높은 矜持와 創意性·道德性을 육성하는 全人敎育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는 高等教育의 使命과 役割을 규정하였다. 敎育改革審議會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할 韓國人像의 창조를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敎育이념으로서 自主的 人間, 創造的 人間, 道德的 人間의 세 가치를 설정하였는 바 高等教育 개혁에 있어서도 그러한 人間상의 具現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現行 高等教育의 質의 미흡과 運營의 硬直性을 시정하고 21세기의 高度産業社會를 선도할 고급인력을 배출하면서 國際化·民主化 社會의 多元主義

的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번 高等教育 개혁은 秀越性과 自律性·多樣性·效率性을 提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력 및 기술의 개발을 통한 國際競爭力을 확보하려면 高等教育의 秀越性 제고가 절실히 요청되며 民主主義敎育을 구현하자면 敎育내용과 운영에 있어 自律性과 多樣性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敎育資源의 限界性과 高等教育에 기대하는 責務性(accountability)을 감안할 때 效率性의 增大는 불가피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네 가지 基本方向은 敎育개혁심의회가 高等教育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基本哲學을 闡명한 것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改革代案을 작성하고 심의하는 데 指針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기본 방향에 관한 概念的인 논의와 더불어 그러한 방향을 채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主要方向에 관한 간략한 해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글에서 작은 활자로 인쇄된 부분은 敎育개혁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의결 主文임.

## 1. 秀越性的 追求

교육에 있어서 秀越性(excellence)의 의미는 개인, 학교, 사회의 각 차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個人學習의 차원에서 수월성이란, 被教育者 개개인의 타고난 潛在能力과 素質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활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教育機關인 학교의 차원에서는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質을 높이고 다른 학교들보다 훌륭한 教育與件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社會의 차원에서는 교육의 平凡性 내지 平均化를 지양하고 각 개인 혹은 조직의 상대적인 능력과 質을 반영한 補償體制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質의 高度化를 촉진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의 확보는 각 개인의 잠재적인 자질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개인간 및 교육기관간에 善意의 경쟁을 조성하는 與件 및 制度的인 裝置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의미한다.

교육의 수월성은 實績主義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機會均等理念과도 부합되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equality)의 개념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는데 교육부문에서는 한층 심한 것 같다. 能力이나 實績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平等인 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본디 평등이란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相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自由資本主義 理念下에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相對的인 평등이 중요하며, 同等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不平等(Equal treatment for unequal is unequal)에 해당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中等學校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平準化施策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本 審議會에서는 學群內에서 학교의 희망에 따라 個別入試를 시행할 수 있도록 補充策을 마련한 바 있다. 비단 中等교육에 있어서 뿐 아니라 高等教育에 있어서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간에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는 體制가 미약하다. 入試制度에서부터 눈치와 요행이 큰 變數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도 選別的인 集中育成보다는 평등의 원칙에 따른 균등한 배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바, 劃一的인 예산지원 기준 및 研究費 配定 등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教育改革에 있어서 가장 높은 優先順位를 부여하고 있는 방향이다. 교육의 質의 水準 低下는 곧 국가 발전의 落後를 가져온다는 강한 危機意識 속에서 교육의 秀越性 확보에 경쟁적인 노력을 傾注하고 있는 것이다. 天賦의 物的 資源이 부족하여 技術集約的인 발전 전략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教育改革作業에서는 '秀越性的 追求'를 아홉 개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 금번 高等教育改革에 있어서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向後 고등교육은 質的 高度化에 역점을 둔다. 고등교육인구를 適正化하고 최소한의 教育與件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教育評價 및 學位授與與件을 강화한다.

'8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고등교육기관의 學生定員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양적 확대보다 質的인 향상에 초점을 두고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도록 統制와 支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준 미달의 졸업생을 배출하거나 學位를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과 要件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의 質的 水準 提高를 위한 개별 대학간에 善意의 경쟁을 유도한다. 最少要件 이상의 실적과 노력에 대해서는 選別的인 育成 및 差等支援 原則을 적용한다.

대학교육의 秀越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大學(校)의 창의적인 노력을 유발시켜야 하며 그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健實하고 실적이 좋은 대학들은 集中支援해 줄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理想的인 이기는 하지만 資源의 限界性 등을 감안할 때 非現實的이며, 따라서 選別的인 육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는 개인의 適性和 能力을 최대한 伸長하여 指導的 人格의 함양과 自我實現을 촉진한다. 大學의 入試制度和 教育課程의 개편은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潛在力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기본이 되는 과제이므로 대학 입학제도 운영 및 입학 후의 교육내용 편성에 있어 각 개인의 適性和 能力을 충분히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研究活動 및 大學院教育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研究支援施設 및 研究費財源을 확충하며 대학 부설연구소를 選別的으로 지원·육성한다. 또한 大學院教育和 研究機能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大學院中心 大學을 육성한다.

대학교육의 質的 高度化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대학내의 研究活動과 大學院教育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小數의 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秀越性を 확보하고 국내의 타 대학(교)들을 先導하게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2. 自律性的의 伸長

본디 自律(autonomy)이란 스스로 다스리고 統制(self-control)한다는 개념이다. 외부로부터의 지시와 감독을 배제하고 獨自的인 裁量權을 행사하되 행위의 過程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應分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에는 반드시 충분한 自治能力과 아울러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責任意識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自律性이라는 개념은 教育目的的 차원과 手段的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教育目的的 차원에서의 자율성이란 교육기능의 본질이 곧 人間自律性的의 신장이라는 의미이다. 교육의 목적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人間屬性을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스스로 事理를 판단하여 바르게 행할 줄 아는 自律的 人間の 양성이기 때문이다. 手段的 차원의 自律性이란 그와 같은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 교육의 운영 자체가 자율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教授·學習활동, 학교 운영 및 각급 교육행정의 方式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요컨대 교육 운영 방식은 그 자체가 생생한 教育素材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自律能力과 자율적 태도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에서부터 自律性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創意性을 발휘하고 自治能力을 배양할 기회가 봉쇄되고 만다. 특히 고등교육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專門性을 바탕으로 한 자율화가 요청되는 분야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敎職者들은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높은 資質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 高度의 自律性을 부여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創意的이고 自發的인 노력과 效率的인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大學行政은 일반 행정 못지 않게 他律的이고 官僚的인 운영 방식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中央部處의 업무가 하부기관에 많이 위임되었지만 아직도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은 文敎部가 결정하여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大學(校)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 구성원들 개개인의 自主的인 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한 수준까지 권한을 위임하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보다는, 上級者로부터의 一方的인 결정과 지시에 의존하는 官僚的인 行態가 尙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고등교육이 自由民主主義 이념을 실현하고 운영의 效率性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중배

와 같은 他律的이고 下向的인 교육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文敎行政으로부터 學科 운영에 이르는 제 차원에서 自律性의 伸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 행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政府當局의 대학에 대한 統制를 완화한다. 대학에 대한 指示·報告사항을 대폭 감축하여 대학 자체의 裁量權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대학(교)에 自治運營機構의 설치를 검토한다.

정부 당국은 전국적으로 統一된 基準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수립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大學(校)에 위임하여야 한다. 사립대학(교)에는 행정적인 간섭과 지시를 最少化해야 하며 국립대학(교)에도 理事會나 評議員會와 같은 自治運營機構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학교육에 관한 基準設定 및 質的 統制는 大學間 評價認定體制 및 協議機構를 육성하여 自律的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종래에는 行政當局에서 직접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고등교육기관 數의 증가와 고등교육의 專門化 추세를 감안할 때 행정기관에 의한 그와 같은 統制는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대학들 스스로의 評價認定體制(accreditation system)를 형성하여 會員大學에 대한 교육의 質과 교육 여건의 具備 정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대학의 自治能力 배양 및 健全運營을 촉진한다. 행정의 自律化에 따른 대학 스스로의 受容能力을 제고하고 행정 요원들의 專門性을 신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학 운영에 대한 부당한 干涉을 배제하고 財政運營의 공개 등 自律的 統制裝置를 확립한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의 대학 운영에 대한 간여는

대학들 스스로가 自治能力을 갖추지 못한 데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私立大學의 경우는 學事 및 재정 운영상의 非理를 저질러 그 때문에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劃一的인 統制를 유지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대학 스스로가 자치 능력과 自律的인 統制 자세를 확립하는 일이며 그러한 바탕 위에 行政當局이나 財團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학의 政治的 中立性과 研究活動의 自律性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수들의 身分保障을 강화하고 敎權을 확립하며, 연구과정 및 결과의 公布에 대한 外部 關與를 배제한다.

대학 운영의 自律性과 학문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要件 중의 하나는 교수들의 身分을 보장하고 敎權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수들의 신분에 위협을 주고, 정당한 연구 및 발표활동에 制約을 가하는 제도나 慣行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多樣性的의 助長

多樣性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事物이 共存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다양화는 劃一化와 반대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規格化나 標準化라는 개념과도 背馳되는 관계에 있다. 즉 모든 것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규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자기 고유의 특성을 살리도록 조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화가 반드시 無秩序와 非能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劃一化는 질서정연한 것을 의미하고 秩序는 바로 能率의 이라는 連續等式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규격화나 획일적인 규제가 능률 향상이나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肯定的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역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非能率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個性과 創意性을 조장함으로써 획일화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효과

와 능력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과 운영 방식이 적용되어 왔으며 高等教育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반 교육제도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劃一性과 硬直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學務管理에 있어서 각 대학(교)의 특수성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대부분 一律的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教育課程 운영에 있어서도 개인의 能力이나 適性, 그리고 教育的 필요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교육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高等教育 行政에 있어서도 각 지역이나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획일적인 法規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서 각 대학(교)의 육성방향도 다양성이 조장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地域間, 國·私立間에도 별다른 機能分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학교 운영자의 安逸한 자세에도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不在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에 대한 획일적인 統制의 慣行도 대학측의 自治能力 및 倫理意識이 결여된 데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便宜爲主의 풍토가 불식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病態와 不合理性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번 고등교육 개혁에서는 多樣性을 조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主要方向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社會的 需要에 부응할 수 있도록 高等教育體制를 多樣化한다. 고등교육기관(특히 專門大學)의 분야별 修學年限 및 入學要件에 伸縮性을 부여하고 平生教育 및 社會奉仕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경제 및 사회구조가 多元化되고 고등교육인구도 量的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異質化됨으로써 교육내용과 형태에 대한 요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응하여 學制의 융통성 있는 운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이 요망되는 것이다.

- 각 대학들이 相互補完的으로 기능을 分化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전문대학은 4年制 大學과 다른 機能과 目的을 지녀야 한다. 4년제 대학들은 희망과 여건에 따라 大學院中心 大學과 學部中心 大學, 純粹學問中心 大學과 專門分野中心 大學 등으로 발전모형을 정립하게 한다. 國立大學과 私立大學間의 기능과 역할도 相互補完的으로 分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국의 高等教育機關들이 몇 가지 類型으로 나뉘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기능이 分化되는 것이 제한된 資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그와 같은 기능 분화를 통해서 각 대학들은 한층 專門性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대학간 및 지역간의 協同體制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간의 기능 분화는 國公立과 私立間에, 서울所在 大學과 地方所在 大學間에도 시도될 수 있겠지만 일정한 圈域內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상호간에 補完的인 協同體制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行·財政的인 支援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들이 同一한 類型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止揚하고 각 대학(교)들이 比較優位를 감안하여 數個 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특색 있는 學問性向과 校風을 확립해 나가도록 한다.

우리 大學(校)들은 대부분이 百貨店式으로 모든 학과들을 개설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學問性 向面에서 특색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政府主導的으로 국립 대학들간에는 工學分野의 特性化를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와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대학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先導的인 분야를 集中育成하여 相對的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行·財政的인 지원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육과정 및 방법을 多樣化하여 학생의 교육프

로그래밍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教育目標 및 課程에 따라 적절한 教育方法을 活用함으로써 뚜렷한 個性과 우수한 資質을 가진 人材들이 다양하게 育成되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의 潛在能力과 適性 자체가 다양하므로 그러한 個人差를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異質化 정도는 더욱 深化되고 그들의 교육적 慾求는 한층 다양해질 것이므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절실해질 것이다.

#### 4. 效率性的의 提高

效率性이라는 用語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效果性(effectiveness)과 能率性(efficiency)이 복합된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효과성은 目標達成度, 즉 설정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따라서 環境으로부터의 要請 내지 體制의 對外的 目標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나타내는 外的 生産性(external productivity)과 유사한 개념이다.

한편 能率성은 설정된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經濟性을 의미하며 投入對 產出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能率성은 일정한 投入資源 내지 費用을 가지고 最大의 產出 내지 成果를 이룩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最少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원칙이라고 하겠다.

教授·學習活動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능과 그 운영은 가장 효과적이고 能率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公教育에 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私教育費까지를 감안하면 總教育費는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 이러한 교육제정의 效率性과 교육의 責任性(accountability)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意識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되기 마련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關聯集團의 知

的 水準이나 行政要員들의 資質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만큼 가장 先導的인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高等教育體制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內的인 운영의 能率을 높이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產出의 外的인 生産性을 증대하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人的·物的 資源을 經濟的으로 活用함과 아울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교육효과를 極大化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질 높은 人材들을 차질 없이 배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특히 終局教育이니 만큼 배출되는 졸업생들의 資質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 고등교육 개혁에 있어서는 內的·外的 兩側面에서 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高等教育은 社會的 適合性和 生産性을 높여 나가야 한다. 환경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편함으로써 專門職業性(professionalism)을 높이고 產學協同體制를 강화한다.

현대의 고등교육은 지나치게 象牙塔的인 學問性(academism)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實用的 價値를 중시하는 專門職業性을 조화롭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量的·質的 需要를 정확히 파악하여 關聯制度 및 교육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大學行政體制를 쇄신하고 事務簡素化 및 自動化를 추진하여 대학 운영의 內的 效率性을 제고한다.

대부분의 우리 大學(校)들은 아직도 전통적으로 답습되어 온 비능률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大學行政에 있어서는 기능을 縱的·橫的으로 再配分함과 아울러 적절한 수준까지 업무 위임을 확대하여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文書管理制度를 개선하며 사무처리를 自動化함으로써 遊休人력과 예산을 節

減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財源을 확충하고 財政運營을 合理化한다. 정부제정에 있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收益者 負擔을 적정화하며 民間投資財源의 誘致 확대를 위한 方案을 강구한다.

고등교육은 비교적 적은 투자로 큰 效果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다. 고등교육이 갖는 公共性과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戰略的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투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그 限界性을 보완할 수 있도록 民間投資를 유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財政運營의 合理性을 제고하여 확보된 財源을 가장 效率的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